

< 解 說 >

한국 수산업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현지 현황 소개

홍진근·조삼광*
동원산업(주), *부산수산대학교
(1996년 1월 14일 접수)

Introduction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Indonesia for Extending fisheries Business from Korea to Indonesia

J. K. Hong, S. K. Cho*
Dongwon Industries Co.,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Received January 14, 1996)

I. 인도네시아의 소개 및 사업환경

1. 국토

인도네시아는 면적이 202.7만km²에 달하며, 13,66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최대의 군도 국가이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시아를 잇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토는 몇 개의 섬으로 대별되는데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슬라웨시로 연결되는 대순다 열도, 발리에서 티모르로 연결되는 누사뎡가라 소순다열도, 몰루카 및 이리안자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2. 기후

적도 부근 무역풍대 대륙성 기후를 지니고 있다. 계절은 4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와 10월에서 3월까지의 건기로 나누어진다. 강우량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기온의 편차보다 강우량의 편차가 더욱 크다. 전군도의 평균 강우량은 1,020mm 이지만 수마트라의 대부분 칼리만탄 북서부, 자바의 서부 및 이리안 자야에는 연평균 3,000mm 이상의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다. 습도는 최저 69%에서 최고 95%정도이다. 평균기온

은 25℃ 정도로 떨어지고 습기가 있어 냉기를 느낄 정도로 주야간 기온차가 심한편이다. 해안지역의 기온은 24~35℃, 대륙의 저지대는 20~30℃이며, 고지대는 16~26℃ 정도이다. 높은 산에서는 결빙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인구, 인종

1억 9천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의 50% 이상이 20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이고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아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종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3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동부자바의 자바인, 서부자바의 순다인, 북부 수마트라의 아체인, 중북부 수마트라의 바탁인, 서부 수마트라의 미낭사바우인, 마두라섬과 동자바 지역의 바두라인, 발리의 발리인, 슬라웨시의 부기스인 등이 대표적인 인종이다.

4. 언어

공식언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 이지만 583개의 현지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언어로 아체어, 바틱어, 순다어, 자바어, 사식어, 테툼어, 다약어, 미나하사어, 토라자어, 부기어, 할마헤라어, 암본어, 체람어 및 여러 종류의 이리안 자야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5. 국민성

산이나 들판에 과일류와 채소류, 고구마 등 자연 식량이 많아 식생활에 어려움이 전혀 없고 난방장치나 두터운 옷이 필요없어 근면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온순하며, 대국근성이 있다.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바인을 보면 의사표명이 불분명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인과 접촉할 때는 결론이나 해답을 빨리 내려서는 안되며, 큰소리를 내거나 서두르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신적으로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간과 자료가 필수적이다.

6. 정치, 경제

민주국체를 갖추고 있으며 정치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 공화국이다. 두드러진 특징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는 것이다. 특히 군은 이종의 국가적 사명을 갖는데 국도방위와 함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바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대신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 수하르트 대통령은 1968년부터 중간에 2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장기집권하고 있으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룩하고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종합적 이용과 기간산업 발전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국내경제에 있어 1992년의 금융원화 정책과 1993년의 무역 및 투자규제의 완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책과 함께 세계경제의 전반적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1994년에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

도네시아는 탄탄한 중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제 성장률은 6.5%였으며, 인플레이션은 1자리 숫자의 지속으로 안정된 상태이다.

7. 기타

1993년 기준 GNP는 1,516억 달러이며, 1인당 GNP는 798달러이다. 통화는 루피아이며, 대달러 환율은 1994년 5월말 기준 2,156루피아로 지속적인 환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차는 서부지역(동경 105° 기준)GMP+7시, 중부지역(동경 120° 기준)GMP+8시, 동부지역(동경 135° 기준)GMP+9시 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자카르타의 시차는 KST-2시간이 적용된다.

8. 사업환경

시장 잠재력은 높은 인구수와 1인당 개인소득의 지속적인 증대가 있고 가격 경쟁력면에서는 경제 비교우위의 저임 노동력의 풍부한 자원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경제 운용과 함께 호혜적인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개방적 사업철학으로 94년도에 투자 하한선을 철폐했다. 지난 25년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왔고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아시아 태평양 중심 위치에 있으며 많은 호혜적 여건을 소유하고 있다.

주요한 이익 측면으로는 투자업체의 약 75%가 1회의 확장, 55%가 2회, 35%가 3회 이상의 확장을 하였으며, 외환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투자 이익금 및 로얄티 이동에 따른 제약이 없는 점도 또한 좋은 이점이다. 외국인 투자 환경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인적자원 역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있다. 7,800만에 달하는 노동가용인구는 여전히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습득하면서 점차로 노동의 질적향상도 도모되고 있다.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잠재시장의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요건들을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시키

한국 수산업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현지 현황 소개

기 위하여 경제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금융정책을 엄격히 실행해왔고 경제규제의 완화에도 힘써왔다. 경제개발전략의 성공은 1988년 이래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힘입은 결과이다. 이러한 성공적 외국인 투자유치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기술, 교육, 생산기반시설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투자조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도 외국법인의 경우 81%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윤을 발생시켰고 단지 1%만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고한 물가상승을 억제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경기과열을 막는데 노력하였으며, 이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심리를 가지게 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6월 2일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분양도 의무가 완화되어 조업 개시후 20년 이내에 지분의 51%이상을 인도네시아 합작파트너에게 양도하도록 한 후 의무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지분양도를 규정하므로써 외자의 실질적인 경영권 소유를 인정하였다.

둘째, 100% 외자기업설립시 규제를 완화하여 특정지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던 100% 외자기업 설립 가능지역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하였다.

셋째, 최저 투자액 규정을 완화하여 종래 최저 투자액을 100만달러 이상(예외적으로 25만달러 이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새로운 규정에서는 최저투자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넷째, 합작기업 설립시 외자비율상한을 기존 8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섯째, 합작투자 분야를 확대하여 항만, 전력(송전포함), 원자력발전, 통신, 해운, 항공운수, 철

<표 1> 일반최저임금

(단위 : 루피아, %)

	개 정 시 기	종 전	신 규	상 승 률(%)
서 자 바	94년 1월 1일	2,800	3,800	46
자 카 르 타	94년 1월 1일	3,000	3,800	27
리 아 우				
마 탈 섬 이 외	94년 4월 1일	2,700	3,100	15
바 람 섭 섬	"	5,500	6,750	22
서 수 마 트 라	"	1,900	2,500	31
벵쭈두	"	2,000	3,000	50
중 부 자 바	"	2,000	2,700	35
족 자 카 르 타	"	1,600	2,200	37
동 자 바	"	2,250	3,000	33
발 리 리	"	2,500	3,300	32
남 칼 리 만 탄	"	2,600	3,100	29
중부칼 리 만 탄	"	2,350	2,750	27
동 칼 리 만 탄	"	2,400	3,250	35
남 슬 라 웨 시	"	1,750	2,300	31
중부슬 라 웨 시	"	1,750	2,300	31
북구슬 라 웨 시	"	2,000	2,700	35
동남슬 라 웨 시	"	2,150	2,800	32
동 티 모 르	"	2,000	3,000	50
감 비	"	2,100	2,400	14
탐 풍	"	1,750	2,450	40
동 누 가 텡 가 라	94년 8월 1일	2,100	2,500	19
남 수 마 트 라	94년 4월 1일	1,600	2,300	44
이 리 안 자 야	94년 8월 1일	3,500	4,500	29
아 체	94년 4월 1일	2,133	2,600	22
북 수 마 트 라	94년 8월 1일	3,100	3,750	21
서 칼 리 만 탄	"	1,800	2,250	25
말 쿠 쿠	"	1,800	2,300	28

<표 1-1> 업체별 월평균 최고, 최저 임금동향

(단위 : 루피아)

업종	1991	1992	1993	1994
최저임금				
· 농업/플랜테이션	116,370	129,985	152,992	158,805
· 광업	321,750	359,394	423,006	439,080
· 제조업	160,689	179,489	211,611	219,652
· 건설업	176,338	196,969	231,832	240,641
· 전기	124,740	139,334	163,996	170,227
· 무역/은행/보험업	233,707	261,050	307,255	318,930
· 운송업	168,880	188,549	211,922	230,355
· 서비스	200,837	224,334	264,041	274,074
· 기타	69,200	77,296	90,977	94,434
최고임금				
· 농업/플랜테이션	1,535,665	1,715,337	2,018,951	2,095,671
· 광업	3,869,560	4,527,385	5,328,732	5,531,223
· 제조업	2,070,460	2,312,703	2,722,051	2,825,488
· 건설업	1,959,806	2,189,103	2,567,574	2,674,483
· 전기	1,001,849	1,119,065	1,317,139	1,367,190
· 무역/은행/보험업	2,479,148	2,769,208	3,259,357	3,383,212
· 운송업	2,179,183	2,434,147	2,864,991	2,973,860
· 서비스	2,000,837	2,243,340	2,640,420	2,740,740
· 기타	461,900	515,942	607,263	630,338

도수송, 상하수도, 매스미디어 등 9개 인프라 부문에 대한 합작투자를 허용하였다.

1994년 6월에 취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조치는 외국인 투자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경쟁국으로 선회하여 인도네시아로의 외자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취해진 대응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력자원 및 임금수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실업상태는 약 38% 수준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용노동인구 8천만명 중 약 3천만명 이상이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용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신규노동력이 약 200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현재까지는 노동력이 풍부하여 상당기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네시아는 저임금의 이점을 이용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왔다. 특히 부의 균등분배와 함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요구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노동조건 개선 압력 등으

<표 1-2> 자카르타 임금수준

노동력 분류	월급여액(달러)
· 비숙련 노동	60~80
· 숙련 노동	100~200
· 공장 감독	200~400
· 공장 관리	1,000~2,500
· 점원 및 타이피스트	150~250
· 영어사용 가능한 중견비서	400~600
· 중견회계·판매·생산관리	600~1,500
· 금융관리	1,200~2,000

* 임금수준은 세후 순급여액임.

로 1995년에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표는 임금이 최고로 높은 수준인 자카르타의 노동력 분류에 따른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각 지방은 최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빌미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에 대해 강력한 시장 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4년 4월 발생한 북수마트라의 메단시 노동폭력은 한가지 예가 될 수 있으며, 최근 발생한 파업현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 5일

한국 수산업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현지 현황 소개

<표 1-3> 인도네시아의 태업 발생현황
(단위 : 건수, 명, 시간)

연 도	건 수	참가노동자수	작업 손실시간
1988	39	7,545	69,213
1989	19	4,245	29,454
1990	61	31,234	316,590
1991	130	64,474	534,610
1992	197	98,764	1,044,519
1993	169	97,807	857,845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 6일 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 중에 서구의 방식을 도입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II.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외교관계는 1949년 12월 31일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국가로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1966년 8월 양국간 영사관 개설에 이어 1973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대한 및 대북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와 경제, 통상, 기술, 자본협력 등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를 중점지연 대상국가로 특별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총건설계약은 1994년 9월말 20.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 8위 건설진출 대상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국에 대한 투자액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까지 중소기업이 다수진출한 반면 최근에는 전자, 합섬, 조미료 등 대규모 투자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선경, 제일제당, 기아자동차 등 주요기업이 최근 투자 진출한 바 있다. 특히 포항제철은 최초의 해외일관 제철소 건설을 목표로 대인도네시아 진출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995년 중 본격적으로

제철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 6위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 4위 교역 대상국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철강, 전자전기, 플라스틱, 섬유류, 가죽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가스, 커피, 목재, 펄프 등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1989년 인도네시아의 동아통제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4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며, 인도네시아로부터 10번째로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로 위치하고 있다. 1990년에는 각각 수출과 수입이 각각 16위와 7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지난 1993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수출 8위와 수입 7위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III. 아국기업 진출현황

1994. 6. 30 기준 우리나라 대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현지 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 의복업체인 가야실업 외 총 264개 업체가 진출해 있고 투자규모도 8억 1백만 4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 수산회사도 7개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외국기업 진출현황

1967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이래 지속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1967년 이후 1994년 상반기까지 투자조정위원회 기준으로 총 77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일본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표 2> 외국인 투자 10대 국가(1967~1994 상반기)
(단위 : 백만달러, %))

국 가	투자총액	외국인 투자자본 대비 비율
일 본	17,609.4	22.8
대 만	87,375	11.3
홍 콩	80,240	10.4
미 국	69,943	9.0
영 국	69,834	9.0
네덜란드	67,525	8.7
싱가포르	59,491	7.7
한 국	3,736.2	4.8
호 주	1,990.8	2.6
독 일	1,973.4	2.6

홍진근·조삼광

<표 2-1> 국별 외국인 투자 승인 현황(1961~1993)

(단위 : 건, 10억, 루피아)

부 문	1991년도		1992년도		1993년도		67~93년 누계	
	건 수	투자 승인액	건 수	투자 승인액	건 수	투자 승인액	건 수	투자 승인액
1. 아메리카								
· 미 국	8	275.6	15	922.5	18	44.5	161	3,700.5
· 캐 나 다	5	10.0	0	0.1	2	46.5	16	78.8
· 기 타	4	161.1	2	19.6	2	35.5	30	653.1
2. 유 럽								
· 벨 기 에	0	23.0	3	21.7	3	9.9	21	292.5
· 덴 마 크	2	12.2	0	3.5	1	0.3	15	105.7
· 프 랑 스	3	25.8	3	19.9	6	158.0	38	431.0
· 이 탈 리 아	1	1.1	2	2.6	2	4.2	8	24.5
· 네덜란드	9	183.6	10	96.2	11	311.4	111	4,071.1
· 노르웨이	1	18.0	0	0.0	1	3.0	7	241.1
· 독 일	4	59.9	6	36.7	8	120.6	61	1,957.4
· 영 국	15	535.7	18	978.2	14	301.1	132	2,759.1
· 스 위 스	6	307.8	5	11.5	5	17.9	35	572.6
· 기 타	2	19.4	3	194.3	4	3.4	22	1,033.7
3. 아 시 아								
· 일 본	82	929.3	51	1,510.6	54	836.1	575	13,937.0
· 한 국	54	301.3	28	618.3	22	661.4	296	3,621.5
· 홍콩	26	277.7	40	1,020.9	24	384.1	261	5,682.5
· 대 만	58	1,057.3	23	563.3	21	131.4	266	4,034.5
· 싱가포르	45	346.4	43	465.1	57	1,460.2	250	3,894.9
· 인 도	1	1.0	1	7.9	2	76.0	14	217.5
4. 호 주	8	48.4	10	67.8	15	153.2	140	1,500.7
· 뉴질랜드	0	0.0	3	17.1	2	4.8	7	23.2
5.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0	0.0	0	0.0	2	2.0	3	3.0
· 기 타	1	5.8	2	4.4	1	382.0	12	430.1
6. 기 타 국	32	138.1	26	3,626.2	16	2,487.6	185	17,833.9
합 계	376	8,770.0	305	10,323.2	329	8,144.2	2,742	67,624.6

대한 투자 1위국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대만, 홍콩, 미국 등이 투자순위를 잇고 있다. 한국은 총 37억 3,620만 달러로 1994년 6월말 현재 제 8위의 투자국에 위치하고 있다.

V. 대 인도네시아 수산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 트롤 산업

1989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흑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94년 들어와서 어획량 감소, 고가어종 어획을 저조, 국내 다량 물량 반입 등으로 어가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원인 분석을 해보면 무

엇보다도 첫째, 먼저 아라푸라어장의 아국 선포량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동원산업을 시발적으로 한 아라푸라어장이 현재 29선사 70척으로 중국, 태국 등 쌍끌이 어선과 함께 지금까지 대량 남획하는 바람에 자원고갈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상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수온이 불규칙하고 계속적인 우기로 수온이 떨어져 예년과 같은 성어기가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다. 셋째, 고가어종의 어획율이 저조하고(93년 대비 94년 12% 감소)제품처리 불량 등도 원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넷째, 한국 어선단 급증으로 국내어획물 반입량이 급증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어가가 하락하였다(93년 대비 94년 8% 하락). 다섯째, 인도네시아의 규제 및 부대경비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아국선이 간간히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불법조

업 명목으로 나포당한 적이 있었으나 94년 9월에 무려 15척이나 나포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조업손실, 벌금징수 등의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고, 대리점의 횡포로 항만 부대경비 등 제반 추가경비 발생 등이 더욱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95년 4월 부터는 신규면허는 전면 중단되고 1999년부터는 외국적선은 기존면허 재갱신도 불가할 방침이라는 것을 고시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자원 재생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97년 개방되면 반입물량은 더욱 늘어 날 것이며,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2척을 소유한 영세선사들은 상기한 이유로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국면 전환이 없는 한 94년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수의 선사가 철수 또는 도산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투나 베이트 구매사업

참치독항선에 사용되는 미끼종류는 주로 고등어, 오징어, 정어리, 갈고등어, 밀크피쉬를 이루고 있다. 그중 갈고등어, 밀크피쉬는 일본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있으며, 갈고등어는 10kg 박스당 USD27 - 37, 밀크피쉬는 USD25 - 30에 구매되었으나 현재는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주에 아국의 코린수산, 제원수산, 성경수산, 중원수산, 신안자야 등에서 수매사업을 하여 한국에 판매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한 결과이다.

일본상사의 대아국 갈고등어 판매 경로를 살펴보면 주로 슬라웨시주의 비통에서 Kg당 US1.4 - 1.9에 구입 아국 독항선사에 US2.7 - 3.7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년전부터 아국이 비통에서 구매 국내 독항선사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자 일본상사의 국내선사 판매가격이 낮아진 실정이다.

그러나 아국 수매사들의 과당경쟁과 일본상사들의 가격하락 전략으로 아국 수매사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성경, 신안자야, 코린수산 3개사만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구매선사들이 견제하지 않으면 일본상사들의 갈고등어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은 뻔한 이치이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다. 밀크피쉬(MILK

FISH)는 현지어로 반둥이라고 불리며 주로 수라바야에 집중되어 있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담수어로서 수년전부터 참치독항선용 미끼로 선호되고 있으며 일본상사들이 수입하여 일본으로 기항하는 아국독항선에 판매하거나 국내선사들이 인도네시아 무역상사들로부터 소량씩 수입하여 사용해왔다.

가격은 시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kg 박스당 한국, 일본 US16.5 - 18.0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상사들이 이 가격으로 수입 US25 - 30에 국내선사에 판매하고 있다. 동원산업의 경우 회사 독항선이 출어 일본 시모노세끼나 시미즈에 기항시 갈고등어, 밀크피쉬를 이 같은 가격으로 구매해왔다. 이러한 구매 루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매루트에 대한 인지가 없었으며 정보의 부재와 제품에 대한 보증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상대적으로 가격비교 기회가 없었음) 품질보증, 납기정확 등을 우선으로한 업무수행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수산물 수입사업

1) 현황

동원산업 무역팀에서 1994년 수입한 수산물은 57건이었으며 총거래 금액은 한화 62억 8천 9백 만원이었다. 구매 대상품목은 필리핀의 새우, 중국의 참치, 문어, 미국, 캐나다의 대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직교역은 거의 없고 일본의 중개상사를 통하여 수입한 것을 알 수 있다.

95년 들어 일본 닛쓰이 상사 중개로 인도네시아 산 새우 2건 USD 160,000 수입실적이 있다. 대부분 중개를 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마진폭이 적고 정보에 대한 제한이 많다. 즉 중개상사를 통한 경우 수익성이 있는 아이템은 아사측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앞장에서 간단히 언급했다시피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대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가 없고 주로 일본상사에 의존하므로 아이템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교역이 아니고, 일본 중간업자를 통하므로써 제품에 대한 보증은 언

을 수가 있겠으나 마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97년 수산물이 전면 개방될 경우 중간업자를 통한 수입활동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방추세에 발맞추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경쟁역시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므로 이윤 역시 더욱 적어 질 것으로 보인다.

3) 대책

무엇보다도 중간업체의 정보의존에서 탈피하여 다소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7년도 개방에 대비하여 수산물 아이템별 생산지역과 계절별 생산량, 구매사 등의 KNOW HOW 축적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원은 무궁무진한 반면 냉동창고 부족, 수송수단 빈곤, 개발의지 빈약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도를 쌓는다면 얼마든지 발전될 소지가 보인다.

Ⅵ. 향후의 투자전망과 비전

1. 냉동공장 임대 및 구매

인도네시아는 어자원이 무한한 반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면 어법이 들망등 원시적이며 소극적으로 어류를 포획하고 있다. 어선 역시 소형이며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선박이 별로 없다. 제일 큰 선박이 30톤 규모로 참치(빅아이, 엘로우 핀)를 주축으로 어획하여 빙장하여 항구로 입항하는 것이 고작이고 원양어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통 3~5톤 정도의 동력선으로 출어하여 어획한 뒤 냉동창고에 판매하고 있으며 냉동창고의 계약제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로 약 800만명의 어민이 대부분 영세하므로 정책상 연안어업을 기계화, 현대화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량집하를 위해서는 냉동공장을 임대 또는 구매하여 어민들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매하여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냉동공장이 주로 임해지역 그 중에서도 소형 어선이 접이안 가능한 해변가에 입지하고 있다. 슬라웨시주를 보면 비통, 꼬롱꼬롱, 견다리, 우중판당 이 네 지역에 냉동공

장이 밀집하여 있고 어업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진다.

냉동공장으로부터 수산물을 구매 아국에 수입하는 것은 제품 검사만 철저히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물량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마진폭이 낮다. 반면 냉동 공장을 운영한다면 일시 자금이 투자되고 최악의 경우 회수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어민으로부터 직접 수산물 구매를 하므로써 값싸게 구매할 수 있고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비통의 경우 부동산 값이 평당 5,000에서 7,000원, 비싸야 10,000원 정도이며, 100톤 규모 냉동공장이 1억원 정도 하므로 투자액 측면에서 무리가 없고 부동산 투자가치도 있다. 94년 6월에 공포된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법으로 95%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수매선 투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어업특성은 어선이 소형이고 냉동, 냉장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냉동공장을 거점으로 단거리 어업이 발달되어 있고 운송상의 문제로 선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거리 수역에서 생산되는 어획물들이 이러한 이유로 완전한 제품취급을 받지 못하며, 가격 역시 제 값을 받지 못하므로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각 지역마다 어종별 대량생산 시준이 다르고 비수기에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장을 찾아 다니면서 어민들로부터 수매한다면 현장구매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뿐 아니라 최상의 선도 유지 및 어장을 찾아 이동하므로 시즌, 비시즌 제한 없이 물량 수급이 가능하며 만창되었을 때 운반선을 통해 국내 수입하거나 제 3국 수출 아니면 직접 국내반입 또는 제 3국 수출도 할 수 있다. 또한 아라푸라 어장에서 아국선단들이 양상투기하는 어종들을 수집 대형어는 필렛용으로 소형잡어는 연육용으로 연안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제 3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며, 산지에서 고급화 가공포장한다면 아국 수퍼마켓용으로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문제는 선박을 투입해야 투자규모가 크고 어민들과의 장기계약 확보가 중요하다.

3. 생선필레 가공 공장 및 참치캔 공장 합작 설립

통조림 어류의 생산은 최근 국제적인 수요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공급미달 상태에 있다. 통조림 산업이 대부분 입지하고 있는 북슬라웨이 동부, 자바 동부 지역에서는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92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산 통조림 어류의 약 57%에

달하는 10,500톤(약 16,500만 달러)이 미국으로 수출된 바 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산 통조림 어류의 주요수출 대상국으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간 1992년 기준으로 각각 2,800톤(약 530만 달러), 1,300톤(약 240만 달러), 1,200톤(약 210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한편 1994년 통조림 어류의 수출실적은 1993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비통과 북슬라웨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통조림 어류의 생산량이 예년의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